

SeAn Magazine.

세안그림 정기발행 매거진 Vol.20

...S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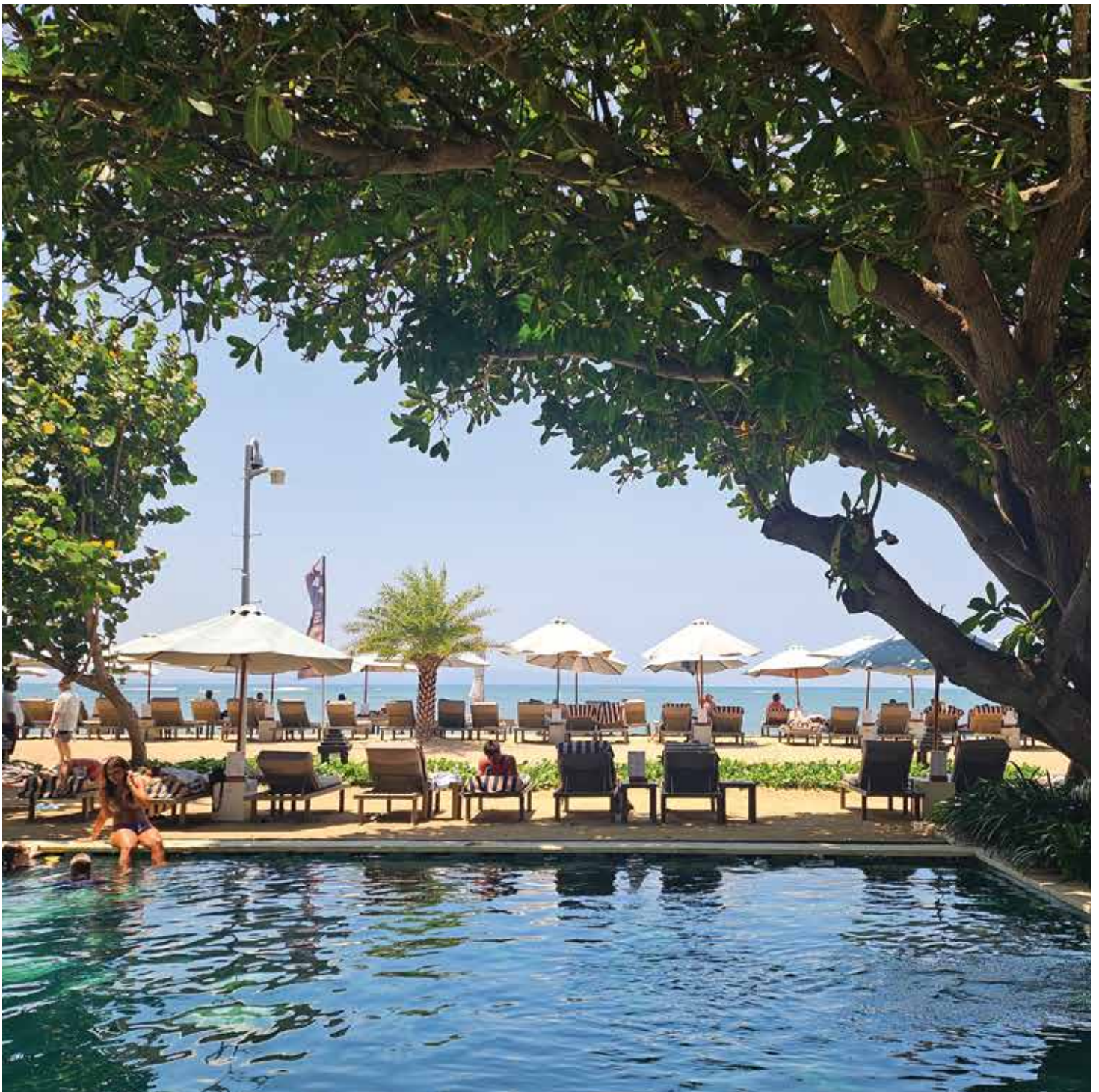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매거진
2025년 겨울 (Winter)

BALI

여행은 무엇인가? 발리의 맨 얼굴:

경이로움과 슬픔, 그 경계선에 서서

우리는 왜 여행을 떠나는가.
'여행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발리,
그곳의 우뚝과 사누르는 내게 그 답이 '경계선'에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그 경계는 단순히 관광객과 현지인의 삶 사이에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지극한 경이로움과 가장 날카로운 슬픔, 그리고 '도시의 나'와 '자연의 나' 사이에도 존재했다.



경계선에서 마주한 '상처'와 '슬픔'

발리의 문화적 심장 '우붓' 그리고 고요한 해변 '사누르'
그 화려한 명성 뒤편에서 나는 선명한 '슬픔'과 '상처'를 마주했다. 관광객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골목 안쪽의 비위생적인 풍경,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신호등이나 안전펜스 하나 없이 진행되던 수많은 공사 현장들.
'여행자들의 천국'을 지탱하기 위해, 정작 그 나라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안전'이 불명확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과 권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요구하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경계선에서 발견한 '경이로움'과 '순수'

하지만 발리의 경계선은 이 슬픔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우붓에서 경험한 바투르 화산 지프 투어는 내게 정반대의 감정을 안겨주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3시에 가이드를 만나는 고된 여정. 지붕이 없는 지프차로 갈아타고 어둠 속을 1시간쯤 달릴 때, 시커먼 밤하늘에 쏟아질 듯이 펼쳐진 수많은 별들은 그 자체로 찬란한 시간이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음에도, 그 별들은 마치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듯한 반가움과 깊은 친밀감을 주었다.

곧이어 일출을 보기 위해 한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언어와 삶을 지녔지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에 평온을 기원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의 마음으로 보였다. 그 광경에서 나는 인간의 선한 마음을 보았다. 역시 방대한 자연 속에서 인간은 겸손과 함께 평화되는 가 보다.



다시, '경계선'에 서서 나아가다

이 두 가지 경험은 극명하게 달랐다.

도시의 무관심에서 '상처'를 받았고, 대자연의 광활함에서 '정화'를 얻었다. 생각해 본다. 도시 속으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끔이라도 이렇게 자연 속에 파묻혀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행복을 알게 되었다. 어느 한쪽만 경험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엔 변질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발리의 여행은 내게 '도시에서의 나'와 '자연에서의 나'라는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나는 다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역할로 살아간다. 내가 발리에서 느꼈던 그 슬픔을, 어쩌면 한국을 찾은 누군가가 나를 통해 느낄지 모른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와 권리는 없다는 '상처'의 깨달음과, 인간은 자연 속에서 정화될 수 있다는 '경이로움'의 희망.

나는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경계선 위에서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깨어 공부하고 행동해야 함을 다짐한다.

진정한 여행은 이렇듯 '맨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는 과정일 것이다.



진정한 여행은 이렇듯 '맨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는 과정일 것이다.

[다변화된 여행과 숙소의 진화]

여행의 목적이 숙소를 결정한다:
2025년 다변화된 여행 트렌드와 숙소의 진화

당신의 여행은 어떤 '집'을 원하나요?

'여행'이라는 단어의 재정의

과거의 여행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면, 지금의 여행은 '무엇을 위해' 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누군가는 완벽한 휴식(호캉스)을, 누군가는 낯선 도시의 탐험을, 또 누군가는 자연 속의 고요함을 찾아 떠난다. 여행의 형태가 이토록 다채로워진 지금, 숙박업소 역시 단순히 잠자는 곳(Stay)을 넘어 여행의 목적을 완성하는 '경험의 공간(Experience)'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장 좋은 숙소'란 없다. 오직 '당신의 여행에 가장 알맞은 숙소'만 있을 뿐이다. 세안호텔그룹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행자의 100가지 목적에 응답하는 100가지의 '집'을 다채로운 포트폴리오로 제시한다.

TYPE 1

도시의 심장부에서, '도시 탐험가'



여행의 형태

비즈니스 출장, 문화 탐방, 쇼핑, '시티 브레이크(City Break)' 등 도시의 역동성을 즐기려는 여행자. 이들에게 '위치'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시티 브레이크(City Break) : 도시를 짧게 여행하는 휴가를 뜻합니다. 보통 짧은 기간 동안 도시의 문화, 역사, 음식 등을 즐기기 위해 떠납니다.

숙소의 조건

주요 관광지, 비즈니스 구역, 교통 허브와의 압도적인 접근성.

세안의 솔루션

호텔 아트리움 종로

종로, 인사동, 광장시장 등 서울 강북 문화 탐험의 중심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남대문 시장, 명동, 서울역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쇼핑과 교통의 허브 역할

강남 아르누보시티 호텔

강남 중심에 위치한 '어반 호캉스(Urban Ho-cance)'에 최적화된 서비스드 레지던스.



호텔 아트리움 종로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강남 아르누보시티 호텔

TYPE 2

완벽한 '쉼'의 섬, '제주 휴양가'

더베스트제주성산



제주 다이얼랜드블루



제주 그레이스 호텔



제주 센트럴시티 호텔

여행의 형태

'제주'라는 단어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되는 경우. 관광, 레저, 미식, 휴양 등 복합적인 니즈를 가진 국내 최고의 휴양 여행지

숙소의 조건

관광지 접근성, 쾌적한 객실,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편안함

세안의 솔루션

제주 전역을 아우르는 4개의 거점은 여행자의 다양한 동선에 완벽히 대응한다.

더베스트제주성산

성산일출봉을 비롯한 제주 동부권 관광의 베이스캠프

제주 다이얼랜드블루, 제주 그레이스 호텔

서귀포시 핵심에 위치하여, 제주 어느 곳을 여행하든 편안한 '집'이 되어준다.

제주 센트럴시티 호텔

제주공항에서 차량 10분 거리에 있는 위치로 새벽이나 밤 비행에서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TYPE 3

일상을 벗어난 쉼표, '자연 속 휴식가'

여행의 형태

복잡한 도시와 일상을 완전히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치유의 여정

숙소의 조건

시끄러운 도심과의 거리, 자연 친화적인 환경, 고요한 휴식을 보장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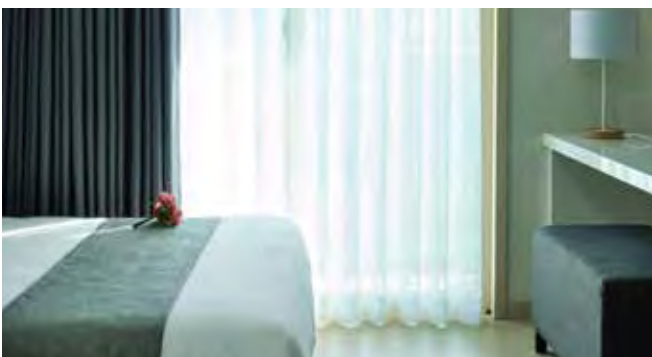
세안의 솔루션

경남 고성군 유스호스텔

경남 고성의 청정한 산과 바다를 만끽하려는 여행자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베이스캠프

거제 리인스테이 호텔

장승포항을 통해 섬으로 떠날 수 있으며 주변 해수욕장에서 남해의 푸른 바다를 즐길 수 있다.



거제 리인스테이 호텔



고성군 유스호스텔

TYPE 4

시간의 결을 걷다, '시간 여행자'



여행의 형태

단순히 예쁜 풍경이 아닌, 그 지역만이 가진 고유의 '역사'와 '전통'의 결을 느끼고 싶어 하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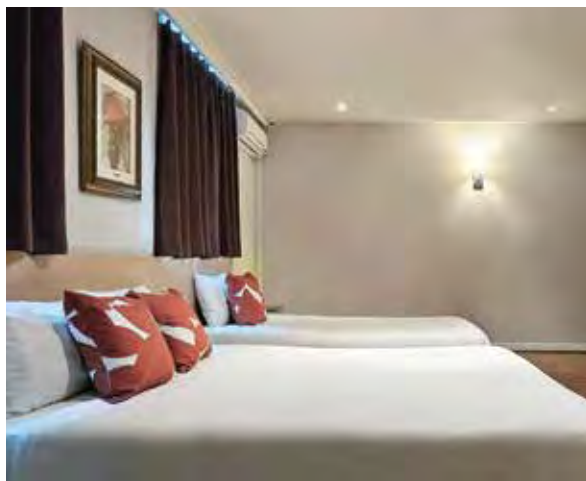
숙소의 조건

지역의 역사와 함께해 온 상징성, 전통적인 분위기, 이야기(Story)가 있는 공간

세안의 솔루션

전주 풍남가족호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역사와 함께 숨 쉬어 온 상징적인 호텔. 한옥마을 인근에서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편안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시간 여행'을 선사한다.



전주 풍남가족호텔

TYPE 5

찰나의 순간도 완벽하게, '틈새 여행자'

여행의 형태

1인 여행, 환승 대기, 당일치기 출장 등 짧은 '틈새 시간'을 가장 효율적이고 프라이빗하게 보내야 하는 여행자

숙소의 조건

압도적인 효율성, 프라이버시 보장, 안전, 합리적인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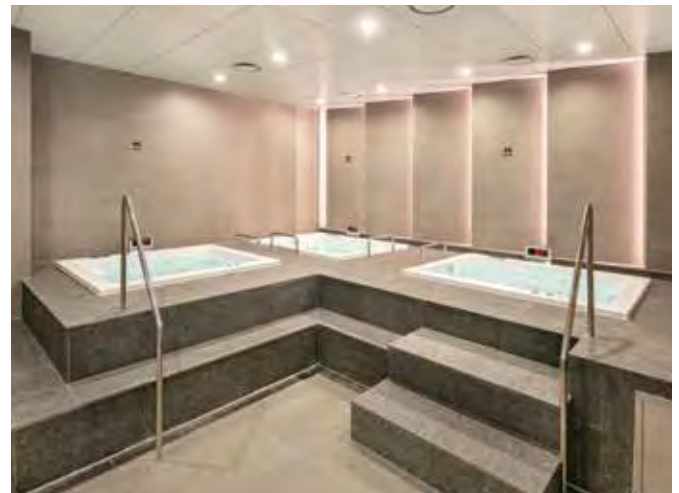
세안의 솔루션

퍼스트 캐빈 명동

1인 도시 여행자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 명동이라는 핵심 위치에 프라이버시와 효율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거점. (2026년 봄 오픈 예정)

스파앳홀T2 (인천공항 2터미널)

여행의 시작과 끝, 혹은 긴 환승의 순간을 가장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공항 내 '오아시스'. 찰나의 휴식마저 '여행'의 일부로 완성시킨다.



모든 여행은 그에 맞는 '집'을 가질 권리가 있다

세안호텔그룹은 여행의 목적이 100가지라면,
100가지의 각기 다른 '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효율적인 도시 탐험가를 위한 '호텔'과 '레지던스'부터, 자연 속 '유스호스텔',
역사의 숨결이 깃든 '관광호텔', 1인 여행자를 위한 '캡슐 호텔', 그리고 찰나의 휴식을 위한 '공항 스파'까지.
당신의 다음 여행은 어떤 목적인가?
그 목적에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는 '집'이 세안호텔그룹에 준비되어 있다.

호텔 고민 끝. 여행 시작. 세안호텔그룹

서울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호텔 아트리움 종로
강남 아르누보씨티 호텔

인천

스파앳홈 사우나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전북

전주 풍남가족호텔

제주

제주 센트럴시티 호텔
더베스트제주성산호텔
제주 디아일랜드블루 호텔
제주 그레이스 호텔

경남

거제 리인스테이 호텔
고성군 유스호스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크리스마스

COUPON

828367-
70430000

₩10,000

쿠폰 사용방법

사용처 : 세안호텔그룹 통합예약사이트

사용기간 : ~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가능호텔 : 강남아르누보시티호텔,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호텔아트리움종로, 거제리인스테이호텔, 고성군유스호스텔, 제주센트럴시티호텔, 제주디아일랜드블루호텔, 제주그레이스호텔, 더베스트제주성산호텔, 전주 풍남가족호텔

사용방법 : 세안호텔그룹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쿠폰을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등록해주세요

www.seanhotelgroup.com 접속 > 회원가입 > 마이호텔 > 나의쿠폰 > 쿠폰등록하기
선착순 100매까지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아이디당 해당 쿠폰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취소 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객실금액에서 할인되며, 추가금액 (옵션선택)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AN NEWS



세안호텔그룹, 日 프리미엄 캡슐호텔 '퍼스트캐빈' 국내 1호점 2026년 봄 명동 개관 목표

세안호텔그룹은 2025년 11월, 일본의 프리미엄 캡슐호텔 브랜드 '퍼스트캐빈(FIRST CABIN)'의 대한민국 1호점(명동)의 투자자 및 공식 운영사로 계약을 체결했다. 본 1호점은 2026년 봄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이번 계약은 세안호텔그룹이 기존에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유스호스텔, 리조트 및 인천공항 T2 내 '스파앳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호스피탈리티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운영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세안호텔그룹은 이번 '퍼스트캐빈' 브랜드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캡슐 호텔'이라는 새로운 숙박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하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방점을 찍게 되었다.

특히 국내 1호점이 오픈하는 '명동'은 서울 관광의 심장부로, 팬데믹 이후 회복되는 관광 수요와 1인 여행객 증가 트렌드가 맞물리는 핵심 상권이다.

세안호텔그룹은 '명동'이라는 상징적인 입지와 '캡슐 호텔'이라는 명확한 컨셉을 결합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프라이버시와 안전, 청결을 중시하는 FIT(개별자유여행객) 고객을 대상으로 정밀한 타겟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퍼스트캐빈 1호점은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명동 관광시장의 숙박 다양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세안호텔그룹의 축적된 운영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성공적인 캡슐 호텔 론칭 사례로 만들어낼 것이다.

내년 봄, '퍼스트캐빈'의 등장이 가져올 명동 관광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기대해본다.



세안호텔그룹, 차세대 ERP '아마란스' 도입... 회계·인사 시스템 고도화 워크숍 개최

세안호텔그룹이 그룹사 전반의 회계 투명성과 인사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세대 통합 ERP '아마란스' 도입을 본격화한다. 이에 발맞춰, 그룹은 최근 전사 재무 및 인사 담당 실무진이 참석하는 '직무 심화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프로그램 교육과 함께 현업의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ERP 도입은 그룹의 디지털 전환(DX)의 핵심이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업무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더베스트제주성산호텔, 몰입형 예술 '빛의 벙커' 패키지 출시

더베스트제주성산호텔이 '문화를 담은 제주 여행'을 테마로 '빛의 벙커'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객실 1박과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빛의 벙커' 입장권 2매, 그리고 12시 레이트 체크아웃 혜택을 결합했다. '빛의 벙커'는 성산일출봉 인근의 옛 비밀 통신 벙커를 개조한 이색적인 공간이다. 빛이 완벽히 차단된 벙커의 독특한 구조가 미디어 아트의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한다. 호텔과 인접한 '빛의 벙커'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고, 호텔에서는 성산의 자연 속 여유로운 휴식을 누릴 수 있어, 예술과 쉼을 동시에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추천한다.



제주 디아일랜드블루호텔, 가족 여행객을 위한 '아쿠아플라넷 패키지' 출시

가족 단위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제주 디아일랜드블루 호텔이 아이와 함께하는 제주 여행을 위한 '아쿠아플라넷 제주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객실 1박과 제주 아쿠아플라넷 입장권 2매, 여유로운 퇴실을 위한 12시 레이트 체크아웃 혜택으로 구성된다.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족관이다. 패키지를 통해 신비로운 해양 생태계 체험과 편안한 호텔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가족 여행객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



모넛코리아, GITEX·SCE 2025서 '디지털트윈' 기술력 입증...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솔루션 전문기업 모넛코리아가 2025년 한 해를 글로벌 시장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로 마무리한다. 모넛코리아는 최근 '두바이 GITEX Global 2025'와 '바르셀로나 Smart City Expo' 등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무대에 연이어 참가, 다양한 산업 현장에 특화된 '디지털트윈 모니터링 솔루션'을 선보여 기술력을 입증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현장에서 만난 글로벌 리더 기업들과 다수의 PoC(기술검증)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모넛코리아의 AIoT 기술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함을 증명한 것이다.

모넛코리아는 이번 겨울,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한 인사이트와 고도화된 데이터 인텔리전스 역량을 집약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6년, 더 정교한 기술로 스마트 세상을 설계해 나갈 모넛코리아의 행보가 주목된다.



세안텍스, '롯데캐슬아이비' 유희공간을 고급 게스트룸으로... "소통이 자산가치 높여"

여의도 랜드마크 주상복합 '롯데캐슬아이비'의 관리 품질이 입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종합 시설관리기업 세안텍스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존에 이용도가 낮았던 단지 내 유희 공간의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세안텍스는 전문적인 공간 진단과 리모델링 기술력을 발휘, 이 공간을 101동과 102동에 각각 고급 게스트룸 2개소로 성공적으로 탈바꿈시켰다.

최근 운영을 시작한 게스트룸은 입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단지 이미지 제고와 실질적인 자산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세안텍스의 선진화된 관리 시스템과 입주민 소통이 빛어낸 성공적인 사례다.



세안텍스, '현장-본사 시너지' 강화... 전 현장 회계직원 워크숍 개최

종합 FM(시설관리) 기업 세안텍스가 2025년 11월, 전 현장의 회계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계 직무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 다양한 관리 현장의 특수성을 공유하고 본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세안텍스는 건물의 안전 및 유지보수는 물론, 관리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나아가 사전 예방 보수를 통한 비용 절감을 핵심 가치로 둔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의 보고가 본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는 소통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본사는 각 현장별 회계업무를 보고받고, 공통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장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세안텍스 관리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가을 축제로 입주민 화합의 꽃 피우다

여의도 랜드마크 주상복합 '롯데캐슬아이비'의 관리 품질이 입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종합 시설관리기업 세안텍스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존에 이용도가 낮았던 단지 내 유휴 공간의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세안텍스는 전문적인 공간 진단과 리모델링 기술력을 발휘, 이 공간을 101동과 102동에 각각 고급 게스트룸 2개소로 성공적으로 탈바꿈시켰다.

최근 운영을 시작한 게스트룸은 입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단지 이미지 제고와 실질적인 자산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세안텍스의 선진화된 관리 시스템과 입주민 소통이 빚어낸 성공적인 사례다.



SHAPING A SMARTER WORLD

예기치 못한 사고는 늘 가장 바쁘고 중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작은 이상 징후를 놓치면 시스템은 멈추고, 쌓아온 신뢰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과 산업은 한층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넡코리아는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상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기업,

그것이 모넡코리아입니다.

MONNIT

Definition:

The standard for
Smart Industries

우리가 가진 기술을 현장의 언어로 풀어내어 스마트 산업의 기본 규범이 되는 것, 이것이 모넡코리아의 비전입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모넡코리아는 30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현장 데이터에서 비롯된 가치를 근간으로 삼아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모넡코리아는 글로벌 무대에서 **AIoT 혁신을 정의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From Complexity To Clarity

모넡은 초저전력 무선 센서 기술에
해답을 담았습니다.

까다로운 시공 공정이나 고비용 장비 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듈형 설치만으로도 24시간 리얼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위험 신호가 포착되는 즉시 알림을 전송합니다.

현장의 복잡함 속에서 탄생한 이 단순한 변화가 현장을 지키고,
운영 혁신을 앞당깁니다.



A Trusted-Global Partner For the Future

오늘, 모넡코리아는 전 세계 85개국
3만 4천 고객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80종이 넘는 다양한 센서 라인업과
최대 15년간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은
현장의 요구에 맞춘 안정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권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춘 플랫폼은
어떤 산업 환경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환경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센서를 공급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스마트시티, 건설현장,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는,
진정한 AI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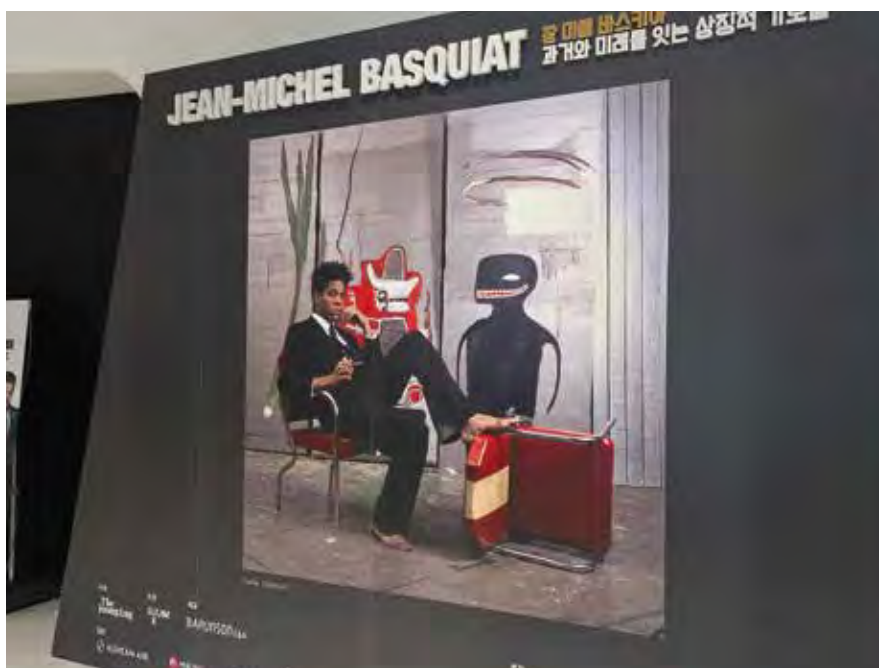
왕관 뒤에 숨겨진 슬픔: 바스키아의 '진짜' 기호를 읽다

장 미셸 바스키아 :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기호들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중구 을지로 281)

'검은 피카소', '낙서 화가'. 수많은 수식어와 함께 하나의 거대한 '아이콘'이 되어버린 장 미셸 바스키아. 그의 작품은 이제 수천억을 호가하는 상품이 되었다. 지금 DDP에서 열리고 있는 <장 미셸 바스키아: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기호들>전은, 그 화려한 명성 너머의 '진짜' 바스키아를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준다.

그는 흑인으로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지'로 소비되는 흑인의 정체성과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향해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소비되는 이미지'가 되어버린 자신의 현재 모습은 관람 내내 묘한 씁쓸함을 안겨준다. 그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는 그 질문의 가장 비싼 '답안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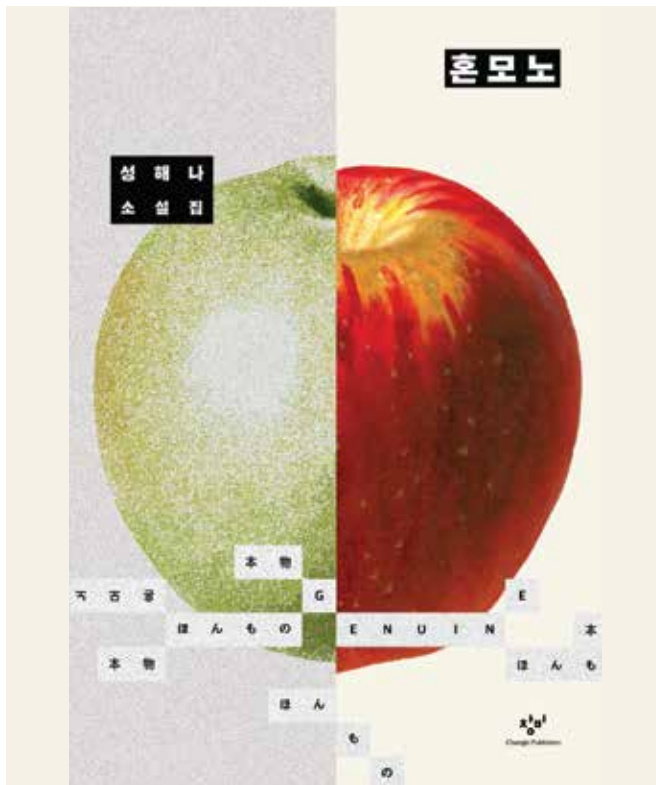




전시가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가 사회의 문제와 문화를 '해부학적'인 시선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는 익숙한 단어를 해체하고, 지우고, 긁어내며 그 의미를 전복시킨다. 뼈와 내장이 드러나는 듯한 인물 표현은 사회의 보이지 않는 속살과 구조를 날것 그대로 들춰낸다. 이 해부는 결코 어둡거나 무겁게만 다가오지 않는다. 언뜻 보면 그 유명한 '왕관'이나 공룡, 만화 같은 캐릭터, 선명한 원색의 기호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표면을 한 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슬프고, 외롭고, 날카롭다. 왕관은 흑인 영웅에 대한 찬사와 동시에, 그를 묶는 굴레이자 자본의 표적이 되는 상징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그림을 표면만 보고 "단순하네", "별거 아니네"라고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결국 그의 작품은 '가볍지만 무겁고, 무겁지만 가벼운' 우리네 인생과 꼭 닮아있다. 그 누구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아니다. 생각 없이 그저 웃고만 있는 사람은 없다. 바스키아의 화려한 색채 뒤에 숨겨진 고독과 분노를 마주하듯, 이 전시를 통해 관객들이 그의 그림 이면에 담긴 깊은 울림과 '진짜' 기호들을 함께 느끼고 사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Book



혼모노

저자 : 성해나

「혼모노」 진짜 삶에 대한 처절한 질문

성해나의 소설 「혼모노」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할머니 귀신을 접신해 유명했던 한 남자는 귀신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옮겨가자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소설의 압권은 마지막, 두 사람이 동시에 행하는 곳 장면이다. 여자아이는 귀신의 힘을 빌려 칼날 위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완벽한 '진짜'의 모습을 연기한다. 반면 남자는 귀신발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운 '뜨겁고 새빨간 점프'를 감행한다. 소설은 묻는다. 기득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화려한 삶을 사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진짜' 삶일까? 아니면 그 힘 없이 부족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온전히 '나의 힘'으로 피 흘리며 하루를 살아내는 남자의 모습이 '진짜(혼모노)'일까? 고통 속에서도 웃으며 자신의 곳을 완성하는 남자의 마지막 모습은, 진짜 삶이란 무엇인지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Movie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

배우 : 루피타 뇽오, 조셉 쿤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 나의 '피자 한 조각'에 대한 물음

별 생각 없이 클릭한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 하지만 영화가 끝난 뒤 '피자 한 조각'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영화는 괴물의 침공으로 아비규환이 된 뉴욕, 소리가 곧 죽음이 된 그날의 생존기를 그린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주인공 '사미라'는 고작 '피자 한 조각'을 찾겠다며 위험천만한 여정을 고집한다. 처음에는 목숨보다 피자가 중요한 그녀가 짜증 나고 이기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된다. 그 피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그녀만의 간절한 '인생의 목표'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리고 '질문' 없이 그 위험한 여정을 묵묵히 돕는 '에릭'. 그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피자 한 조각'이라는 엉뚱한 목표보다, "그게 왜 지금 중요해?" 라고 묻는 우리의 '질문'이 상황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영화는 내게 묻는다. "당신의 '피자 한 조각'은 무엇인가?"



SeAn Group

발행일
2025년 12월 2일

발행처
주식회사 세안텍스

홈페이지
www.seantecs.co.kr

